

지도의 역사와 특색

1장

우리나라 지도 역사의 개관

우리나라 지도의 역사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부터 훌륭한 지도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 실체를 볼 수 없어 애석하다. 어느 시대나 지도는 나라를 경영하였던 위정자와 그 영토에서 삶을 영위하여 온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과 도로, 경지, 건물, 경계 등을 기호나 그림으로 그려 넣은 기록이다. 그래서 지도는 글자와 같이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 지도가 작성된 시대의 지리적 현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지리적 범주와 중요시 하였던 지리 현상들을 통하여 그들이 보았던 세계를 알 수 있어 역사적 사료와 같은 것이다.

우리역사에서 바위에 새긴 선사시대의 그림지도나 무덤벽화에 그린 지도로부터 2007년 완성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를 그리고 제작하였다. 그리고 비록 시대별로 모든 지도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간에 학계의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도 역사의 윤곽이 밝혀졌다. 이 책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지도의 발달 역사를 고대에서 현재까지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고지도 부분과 근현대 지도로 나누어 주요 지도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정리 수록하였다. 여기서 고지도라 함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발간시기까지를 편의상 언급하고 근현대지도는 대체로 측량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제작된 지도를 말한다.

1. 고지도의 발달¹⁾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선사시대로부터 암각화 혹은 바위그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는 그림지도로부터 시작하여²⁾, 4세기경에는 고구려 무덤 벽화에 『요동성도(遼東城圖)』 그림지도를 그렸다. 고구려 영유왕 11(628)년 9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 태종에게 봉역도(封域圖), 즉 강역도(疆域圖)를 바쳤다는 사실과 삼국유사에 『도적(圖籍)』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지도의 역사가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그 밖에 삼국시대의 지도로는 김정호의 『청구도』 부록에 삽입한 『신라구주군현총도』와 조선 숙종20(1694)년에 남구만이 안용복 사건을 논의하면서 『신라도(新羅圖)』를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이들 지도가 실존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는 원·송과의 교류가 활발하였고 인도로부터 불교의 영향 등으로 시야를 넓히는 시기였으며 풍수사상이 지도제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록상에 보면 고려의 지도로는 1002년 거란에 보낸 『고려지리도』가 있었으며, 인종11(1133)년에 윤포(尹誦)가 편찬하였다는 『5천축국도(五天竺國圖)』가 있었다. 이 지도는 불교적 세계관이 깃든 지도로 고려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인도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시야를 넓히는데 크게 공헌 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어 전국도, 도별도, 세계지도 등 다양한 지도들이 제작되었는데 건국 초기 1402년에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라는 세계지도가 국가적 사업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전되는 우리나라 고지도에서 가장 오랜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중화적 세계관과 유럽·아프리카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지리도 반영되어 있다. 15세기에는 세종대의 과학적 기구의 제작과 각종 관측제도의 시행에 따라 측정에 기초한 지도제작의 기반이 이루어 졌다고 본다. 정척(鄭陟, 1390~1475)은 세조 7(1463)년에 양성지(梁誠之, 1414~1482)와 함께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완성하였으나 전해 지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유형의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국보 제248호)가 남아 있다. 정척·양성지의 지도 유형은

1) 본책 5-7장 참조; 이찬(1995)참조; 건설교통부(2008) 참조.

2) 본책 5장 1절 참조.

3) 三國史記, 卷第20, 高句麗本紀, 第8, 고구려 영류왕 11년 9월조.

『舊唐書 太宗貞觀二年, 高句麗王, 建武遣使, 奉賀並上封域圖. 그리고 홍이섭(1944), 63 참조.

封域圖의 봉역은 疆域, 分界, 領地, 邦國 등의 뜻을 지니고 있어 고구려의 강역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圖籍은 지도와 호적, 문적과 도서를 가리키는 말로 지도와 관련된 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봉역도와 도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5장 1절 참조.

18세기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가 출현할 때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팔도총도와 도별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중 팔도총도 판심에 ‘동람도(東覽圖)’라고 기록되어 있어 『동람도』라 부른다. 이 지도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전국도이며 ‘동해(東海), 서해(西海), 남해(南海)’의 바다 이름이 전도 상에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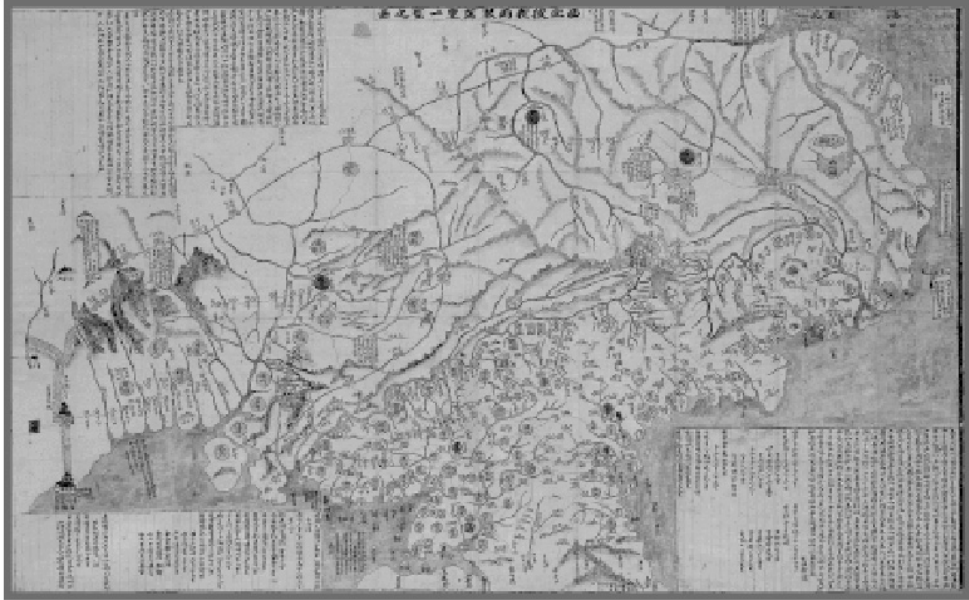
왜란과 호란의 양대 전란을 겪은 후 조선에서는 군사적 목적의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되었는데 『요계관방지도(遼界關防地圖)』는 요동, 만주 일대의 지리정보를 수록한 군사지도였으며, 두만강 유역의 접경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서북피이양계만리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之圖)』류의 지도도 계속 제작되었다.

17세기 이후 중국을 통해 서구식 세계지도가 도입되어 실학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알레니의 『만국전도(萬國全圖)』와 페르비스트의 『곤여전도(坤輿全圖)』도 일찍 도입되어 전통적인 세계지도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형천하도의 출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상적인 추상도, 또는 세계관을 나타낸 지도로 방식과 내용이 일반지도와는 다르다.

조선후기 지도역사에서 변화는 경위도선표 개념의 도입과 위도의 실측으로 방위와 축척이 정확한 지도가 제작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地



[그림 1-1] 『동람도』의 팔도총도



[그림 1-2]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圖』는 이 시대의 제작기술이 반영된 대표적인 지도로 약 42만분의 1의 대축척 지도로 백리척(百里尺)이라는 독창적인 축척이 사용되었다. 원도는 전하지 않으며 모두 필사본 전도와 도별도가 전해진다. 『동국지도』는 이후 관청이나 민간에서 널리 필사되어 조선후기 대축척 전도 제작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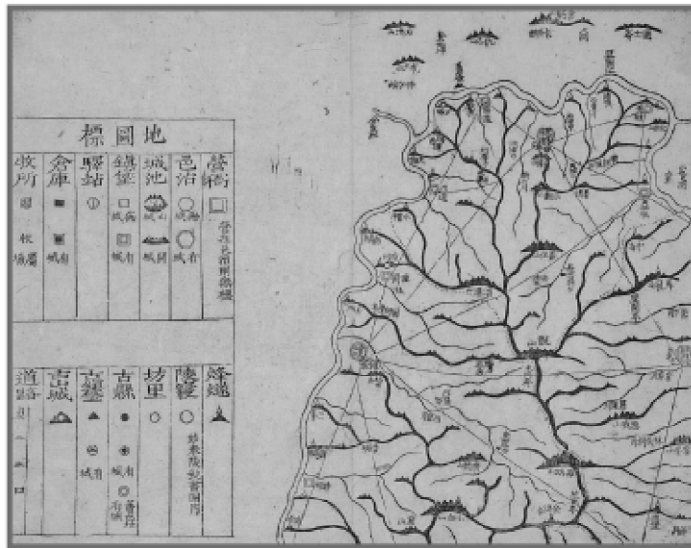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나온 지 약 100년이 지나 조선전도 제작은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1834년에 김정호는 당시까지 축적된 전도 제작의 성과를 기초로 『청구도(靑邱圖)』라는 지도책을 만들었다. 이후 김정호는 1861년에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대동여지도』는 『청구도』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지만 그 형식과 내용을 혁신한 것이다. 『청구도』가 책의 형태로 제작된 것에 비해 『대동여지도』는 전국을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을 각각 접어서 22개의 지도첩으로 만들었다. 또한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산천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산천분합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고, 인문요소의 표현에서는 각종 기호가 사용되었다. 특히 도로망에는 10리마다 표시를 하여 지역 간의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지도이지만 근대적 측량기술로 제작된 지도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관방도, 군현지도, 방안지도, 회화식 지도가 제작되었다. 군현지도는 고을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그린 지도뿐만 아니라 방격을 사용하여 인근 고을과 동일한 축척으로 그렸다. 대부분의 군현지도들은 지형지세, 읍치 공간의 관청이나 제사경관, 각 촌락의 분포와 거리, 군사적 요충지, 재정적인 요소, 유교적인 교화에 필요한 각종 상징물 등이 중요하게 표현되었다.

2. 근현대 지도의 발달⁴⁾

1861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발간이후에 전통적인 지도제작은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근대적 측량기술이 도입되어 새로운 대축척 측량지도가 제작되었다. 1876년 개항이후 1910년 일제 강점기까지는 지도제작에도 열강의 개입으로 체계화 되지 못한 혼란기이었다. 그 중 일본이 지도제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처음에 1/2백만 한국지도를 만들어 청일전쟁(1894~1895년)에 사용하였고, 일본군참모본부에서 1895~1899년 사이에 비밀히 첩보측량반을 침투시켜 평판



[그림 1-3] 『대동여지도』의 함경도 북부지역

4) 건설교통부(2008); 본책 9~11장 참조; 崔在和(1980) 참조.

측량으로 수집한 자료로 445매의 군용지도 1:5만 지도를 제작하였다. 또한, 첩보원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1884년 10월부터 1885년 1월까지 1:10만 축척의 『한성근방지도』, 『부산근방지도』, 『원산근방약도』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1900년까지는 1:20만 지도와 다양한 대축척 지도를 일차적으로 완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표준 1:5만의 대축척지도는 1910~1915년간에 조선총독부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측지사업 완료 후 1918년까지 전국 722개 도엽이 근대적인 측량지도로 작성되었다.

광복 후 정부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등으로 우리 나름의 지도제작은 많은 시간이 걸려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1954년 전후에는 미군에 의해서 항공사진촬영방법에 의해 보완된 1:5만 지도 군사지도 720도엽이 처음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1957년 측지 및 국가기본도의 제작을 위해 국방부 산하에 지리연구소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1961년에는 내무부 국립건설연구소에 지도제작 업무가 이관되었고 1974년에는 국립지리원으로 바뀌어 측지 외 지도제작 업무의 기능 특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국가 중심의 지도제작이 체계화 되었다. 특히, 1967년에 처음으로 우리 항공사진측량기술로 1:25,000 국가기본지형도를 만들었고, 1973년부터는 1:25,000 지도를 축소하여 1:5만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국토개발계획에 기초자료가 되는 1:5,000 대축척지도를 1974년부터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방법에 따라 제작되어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군에서도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장비현대화계획에 의거하여 측량, 지도편집 및 제도분야에 스크라이빙 세트와 필름밀착기 등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1976년에는 항공사진측량을 위한 1급정밀도화기(A-10)를 도입함으로써 자주적으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지구자료탐사위성(LANDSAT) 영상을 지도제작에 반영하였다. 더군다나 항공사진의 정보를 도화하는 기술도 발전하여 기계식 입체도화기에서 해석도화기 그리고 수치도화기로 전환되어 지도제작이 현대화되었다.

정부는 국가기본도 외에 1972년부터 시작하여 1981년까지 국토토지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이용현황도를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의 통계자료를 도표화 한 지도첩으로서 1976년부터 시작하여 1994년까지 132종의 국세지도를 제작하고 이 132도엽을 국세지도첩으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국제수준에 달하는 공식적인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발간하였다. 이 국가지도집은 기본도 제작과는 달리 정부와 민간분야, 학계가 총 망라하여 제작에 참여한 관계로 국내 기술의 총 결합일 뿐 아니라 우리의 지도제작기술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도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학계와 민간분야에서는 그간 다양한 일반지도집을 발간하여 우리 지도학 발전의 일면을 반영하여 왔다. 1967년 간행된 『표준세계지도첩 (The Standard Atlas of The World)』과 1982년 나온 『최신교학지도집 (Kyohak New Atlas)』은 대표적 표준일반지도집이었다. 그리고 『지도로 본 서울(1994, 2000)』은 주제도 제작의 우리나라 현주소를 담고 있다. 그 밖에 1991년 간행된 『한국의 고지도』는 옛 지도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지도집으로 우리나라 지도발달을 역사적으로 일견 할 수 있는 지도집이다.

이기석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정보원, 2007,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양보경, 1998, “韓國의 옛地圖,” 한국의 옛지도(자료편), 영남대학교 박물관, 114-127.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의 발달사, 해안.
 이찬, 1968, “韓國地理學史,” 한국문화사대계 III,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681-734.
 _____, 1995, “韓國古地圖의 發達,” 한국의 고지도-다학문적 접근-, 국제학술 심포지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1-11.
 최재화, 1980, “韓國의 地圖發達史: 近代地圖의 發達,” 韓國地誌 總論, 국립지리원, 126-142.
 한영우·안휘준·배우성, 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홍이섭, 1944, 조선과학사, 삼성출판사
 황만익, 1986, “우리나라 지도의 변천과정,” 도시문제, 21(5) 대한행정공제회, 51-59.